

가정의 달  
성령강림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성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사랑기야 사랑방에서 와서... 붙어서 살아나가게 하라” 에스겔 37:9

새로운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채

성령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 예 배 WORSHIP

May 23,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하나님 앞으로	사역과 행사 안내
	찬양과 경배 (찬양팀과 함께)
	예배기도 / 최선운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요엘 1:1-14
	<b>전환위복의 복</b>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찬송 190장 - 성령이여 강림하시 (통일찬송 177장)
헌신과 나눔	봉 헌 / 홍현근 집사, 최선운 집사
	* 봉헌찬송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삶과 세상으로	* 보냄의 찬양 / 찬송 182장 -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1,3,5절 (통일찬송 169장)
	* 축 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셉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갈라디아서 5:16-26

두 종류의 인생

#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역 / 행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의 행복을 이웃과 세상과 나누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붙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성령강림주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3. **선교주간**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4. **주일예배** 예배를 CDC 와 주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zoom 과 CUMC 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와 지혜를 모읍시다.
5. **2세 신앙교육** E-Learning의 환경 속에 있는 자녀들의 학업과 신앙 교육을 위해 기도합시다.
6. **야외 친교** 예배 후 자녀들과 함께 **Trinity 신학교의 Park**에서 점심 친교를 나눕니다.
7.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 / 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8. **기도** 토요일 새벽 기도(오전 7 시)에 참여합시다.
9. **치유, 회복, 나눔**의 사역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5월의 사역 - 성령강림주일(23), 선교 주간(23-29), 선교 주일(30)

♥ **생일 축하** ♥ 구민(8) 김진숙(17) 구민우(16) 최내권(20)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 예배 섬김이

주일예배기도	5/23	5/30	6/6	6/13
	최선운집사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박진성집사
주일헌금위원	5/23	5/30	6/6	6/13
	홍현근집사/최선운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5월		6월	
	구민집사		김훈태집사	

## 말씀노트

###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무엇을 두려워 하십니까? / 이사야 51:12-1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채워 주시지만,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두려워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권력과 막강한 순사력을 무서워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여러 두려움을 가진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도 자신과 가족의 안전과 미래, 생계와 소유, 사람 관계, 심지어 죽음을 두려워 한다. 이제 두려움 없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아직 두려움의 원인, '나의 바벨론'이 남아 있다면 버려야 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염려나 걱정거리를, 소원과 희망을 다 아신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담대한 성도로서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자.

### 전환위복의 축복 / 요엘 1:1-14

실패나 절망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가자.

금식하며 회개하자.

말씀을 듣고, 배우자.

기도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하자.

전화위복의 축복 / 요엘 1:1-14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 라는 요엘의 예언을 묵상한다. 이 예언의 배경을 통해, Covid-19 이후를 삶과 신앙을 준비할 지혜를 얻는다.

역사에는 주변에 해악을 끼친 다양한 악인이 있었다. 아달라가 대표적인 악인이다. 아달라는 이스라엘왕 아합과 시돈 공주 이세벨의 딸이다. 그는 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여, 왕후가 되었다. 이제 유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됐다. 아달라는 9년 사이 남편과 아들을 잃지만, 권력을 좇아 다윗의 모든 자손을 사살한 후,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다. 아달라의 7년 통치는 유다를 바알 신앙으로 뒤덮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 요아스 한 명을 남겨 두셨다. 고모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아 성전에서 성장한 요아스는, 여호야다는 혁명을 통해 왕이 되었다. 아달라를 처형한 여호야다의 조언을 받으며, 요아스 왕은 정직하게 통치했다. 이 때 무서운 메뚜기 재앙이 발생하여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됐다. 우상숭배와 불의를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유다에 무서운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고통과 공포에 떨며, 왜 재앙이 발생하였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했다. 요엘 선지자는 유다의 불신앙과 죄악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한다. 금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과 축복을 누리라고 선포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요아스 시대에 이런 재앙이 찾아 온 이유는 무엇인가? 유다가 새로운 기회를 놓이지 않고 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실, 징계나 벌 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이다.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라의 집권 때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고, 그들의 목숨을 거두셨다.

요엘 1:4는 팔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 모든 식량을 먹어버린 처참한 상황을 설명한다. 요엘은 회개를 촉구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이끌지 않은 책임을 참회해야 한다. 정치적인 외압에 굴복하여 우상숭배를 묵인한 영적 지도자들은 금식 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여호와와의 성전으로 모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한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메뚜기 떼 재앙으로 인해 유다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메뚜기 떼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닌 것이다.

인생에도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 같은 일이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을 찾기 때문이다. 고난과 절망 때문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오히려 축복의 시작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전화위복의 복이다.

코로나로 인해 삶에 맞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었다. 백신과 면역력 회복으로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때이다.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회개하자. 공동체로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 삶과 신앙

### 모여야 하는 이유

####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사도적 성회, 즉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출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신앙인의 모임이 너무 지루한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많은 이유를 붙인다. 그러나 사실 원인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냉랭해졌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까지 항상 해왔던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고, 미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성경의 뜻을 살피고, 거룩한 찬송가를 부르며, 간증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강림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신자들의 모임에 강하게 끌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교회는 성회, 즉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모임을 갖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차마 거부할 수 없는 관습이 되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은 함께 모이는 것이다.**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료에게 가서”(행 4:23)라는 말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또 다른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다른 신앙인들이 내게 필요 없다고 느낄 때야 말로 그들이 정말로 내게 필요한 때이다. **개인으로서의 신앙인에게는 신앙 모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인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을 신앙인 모임에 말씀하실 수 있다. 물론, 그 반대로 집단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을 외롭게 기도하는 개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

만일 당신의 신앙이 설교자의 설교에 의존해야 한다면, 당신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영혼의 샘물까지 연결된 개인적 파이프가 당신에게 없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목회자가 없다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설교를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직접 그 샘물에 갈 수 있다면 당신에게는 닻(뿌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생수를 받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도 성립된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란,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을 교회 안에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개인기도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개인기도는 공중기도에 의해 수정되고 균형 잡혀야 한다.** 우리는 혼자 성경을 읽어야 하지만, 또 **공중집회의 성경강론도 들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셨다.

초대교인들은 목숨을 거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만났다.

그러므로 모임에 나가라.

주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인도하심으로 당신은 진리를 듣게 될 것이다.  
그분이 모임에 나가셨으므로 우리도 나가야 한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특별한 복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다(마 18:20).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역사적 전통이다.

A.W. 토저, 『하나님은 굶주린 영혼을 먹이신다』



힘도 아닌, 능력도 아닌,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기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만하라고 할때가 그만할 때이지  
우리가 미리 포기하고 물러나면 안됩니다.

질 수 밖에 없다는 말에 속지마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마귀에게 지는 것 같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노력할 때, 주님은 그 흘린 눈물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 최악입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

-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 BIBLE STUDY MINISTER 고순제 전도사  
장영현 전도사
- SUNDAY SCHOOL 김진속 전도사



요고후서 1:5

“그러나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는 능력이 넘치니 아무것도 능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포기하지 마라. 주님께는 능력이 넘치니 아무것도 능하지 못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http://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